지역 소식통

정읍시, 미가 주상복합 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정읍시는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미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정읍시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코아루아파트와 신기메이플아파트,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이어 4개소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일부 구역 또는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미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에 해당하지만 3층 이상의 아파트 복도에 대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71.4%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3년 지역문화 아카데미 운영

고창군이 9월까지 10회에 걸쳐 '2023년 고창 지역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고창 지역문화 아카데미는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번째로 운영된다. 올해 아카데미는 '고창 무형유산의 통찰을 통해 창조하는 지역 활력'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듣는 '강연'과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탐방'으로 구성됐다.

고창 지역문화 강연은 △한국 농악과 고창농악의 이해(송기태, 목포대 교수) △한국 판소리와 고창 판소리의 이해(정병헌,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국과 고창의 지질에 대한 이해(오창환, 전북대 교수) △한국 공예와 고창 공예의 이해(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한국 도자기의 흐름과 고창 도자기의 이해(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 실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사업 선정

정읍시, 73억원 확보… 3년간 동물용 의약품 ·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 추진

정읍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23년도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특화 원천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년간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제는 동물용 의약품의 신약개발과 약물 재창출, 기능성 사료 개발을 통해 동물 질환의 문제를 해소하고, 개방형 개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영세한 산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련 기업들과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정읍시를 비롯한 도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다.

이번 과제는 정읍시와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참여한다. 여기에 주관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를 비롯해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북대학교 등 지역 연구 기관의 기술·자원을 접목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읍시 소재 연구소 기업인 휴벳과 대웅제약, HK이노엔, 한풍네이처팜 등이 공동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정읍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읍시만의 반려동물 新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생명 · 바이오기업 기능성 효능평가지원 협약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연구소 · 식품업체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동반성장 기대

고창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심덕섭 군수)는 12일 고창군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하는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R&D)'의 일환으로 기능성 식품 소재를 보유한 전라북도 내 기업들의 연구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농생명·바이오식품 분야 기업의 기술산업화 지원을 통해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의 성과를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소는 올해 고창군 관내 기업인 ㈜웰런비앤에프(대표 윤호식), ㈜네츄럴코어(대표 김택한), (농)빛뜨락(대표 최윤희)을 비롯해 도내 총 8개소를 수혜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지원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R&D)'의 일환으로 기능성 식품 소재를 보유한 전라북도 내 기업들의 연구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연구소는 본 사업을 통해 실험동물의 지표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혈액분석기와 동물용체성분분석기(DEXA) 등 5종의 첨단 신규장비를 구축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현장 안전점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실 시공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주문했다.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되는 격포 오션힐링파크는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관리사무소와 샤워장, 경관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으로 격포권 관광지(채석강?마실길?격포해수욕장 등)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

증진과 함께 인근 상가의 조망권 확보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격포해수욕장 연안개발사업과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문화관광 분야는 부안군의 역점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토양검정 처방서 무료로 받으세요"

정읍시, 토양 관리 맞춤 정보 제공… 탄소 저감 · 과학영농 실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탄소 저감 농업 실천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검정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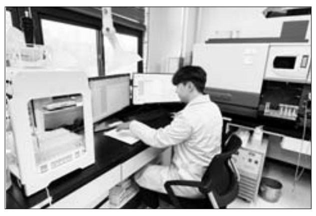
토양검정은 토양 내 영양상태를 확인해 적정량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경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토양 종합건강검진이다.

특히 토양분석실에서 발급하는 시비처방서에 따라 부족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농작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양 염류집적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학영농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토양검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토양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땅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토양을 시료 채취해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로 방문 의뢰하면 된다.

시료 채취 방법은 토양 표면을 걷어



내고 수직으로 15~20cm(과수원은 30cm) 깊이로 5~10개 지점에서 500g 정도 고르게 채취하면 된다.

시료 봉투에는 이름과 날짜, 시료 채취 지번, 면적, 재배작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토양검정 후에는 농경지 양분상태에 맞춰 질소·인산·칼리질 비료 사용량, 퇴비 사용량, 석회·규산 등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알려주는 비료 사용 처방서가 발급된다.

검정 결과는 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흙토람 홈페이지(soil.rda.go.kr)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기센터, 미래농업 '강소농' 육성 박차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강소농(強小農)'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영개선 의지가 높은 중소규모의 가족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지난 11일 제2청사에서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 신규농업인 등 24명의 신규 강소농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은 농업경영의 이해와 경영표준진단, 중장기 계획수립, 선도 농가 현장 교육 등 강소 농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올해 강소농 교육은 11월까지 진행되며,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 후속 과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신규 농가가 강소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6시간과 심화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총 24시간의 후속 과정 교육을 마쳐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농가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선도 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과 강소농 모임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회원들 간의 정보 교환과 공동마케팅 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버스터미널, 토요 관광안내소 운영

고창군이 직영으로 전환된 고창공용버스터미널에서 '토요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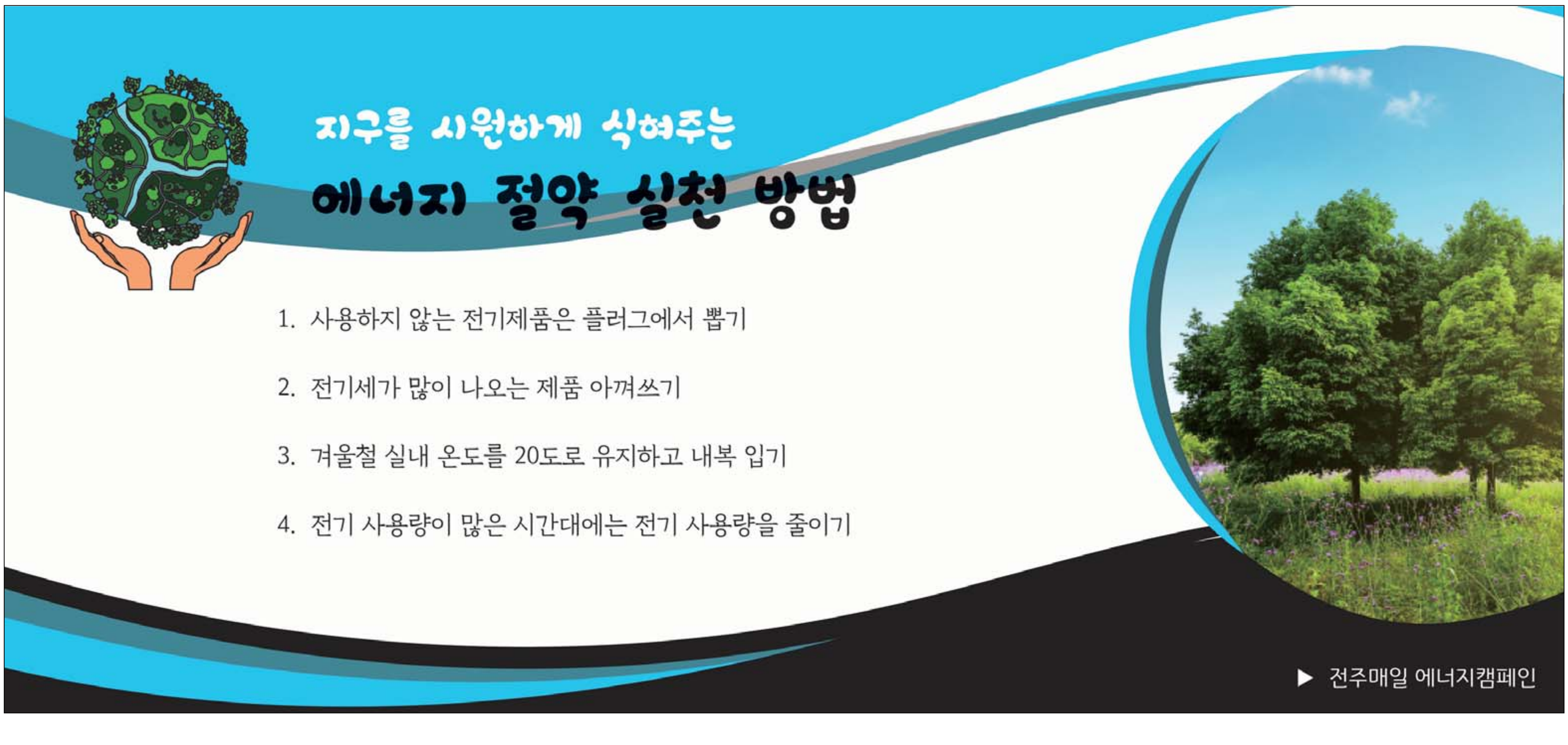
'관광안내소'는 고창 터미널 내에 임시 장소를 마련해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 등 고창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고창 터미널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곳으로, 그동안 관광안내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창터미널 관광안내소에 관광 안내지도, 고창 방문의 해 리플릿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자료가 비치된다.

또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배치해 고창군의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9명으로 주요 관광지 6개 지점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